

흡연이 만병(폐암, 뇌졸중, 동맥경화증, 당뇨병, 불임, 선천성 기형아 및 미숙아 출산등)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다.

며칠전, 일간신문 건강란에 「흡연이 폐암을 부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흡연자의 폐암발생율은 비흡연자의 13배나 된다. 문제는 담배가 흡연자뿐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흡연자가 마시는 담배연기 보다 대기 속에 남아 있는 담배연기에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의 함유량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나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흡연문제는 논쟁이되지 않는다. 하지만 흡연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이상, 그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요즘은 여성들의 흡연율도 높아지고 있다. 전처럼 몰래 피우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이나 극장, 찻집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도 여성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또,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교 까지 담배를 피운다는 보도가 있어 어른들을 놀라게한 일도 있다. 그 정도로 담배의 보급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는 맑은 정신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성장을 저하시키고 노화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한참 성장해야 할 시기의 아이의 흡연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임신중의 흡연은 바로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기형아나 미숙아를 출생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의 흡연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한 미국은 담배를 옥외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배기장치를 갖춘 장소를 제외한 모든 건물이나 시설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이미 수년전에 금지했다. 흡연규제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도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공간을 대폭 확대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담배연기에 조금씩 자신의 건강이 무너져 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공해문제·건강문제에 관심이 고조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애연가들의 설자리는 점차 줄어들것이다.